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우리가, 그림이 되다’ 2인전 갖는 전현숙·성혜림 작가

여인·아이...인물 소재 작업
25년차 나이 넘어 한자리 전시
19일~7월 27일 예술공간 집

▶19일부터 광주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2인전 참여 작가 전현숙(왼쪽), 성혜림씨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렸고 비슷한 ‘인물’을 소재로 작업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젊은 작가 성혜림을 초청했다.

오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예술공간 집(전남여고 정문 앞)에서 열리는 2인전 참여 작가 전현숙(왼쪽)과 무채색 위감의 과장된 여인상(전현숙)과 무채색 위주의 어린이(성혜림). 각기 따로 만났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바라보니 ‘또다른 이야기’를 건네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걱정을 좀 하기는 했어요. 작업 초창기에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었고요. 선배님 그림과 같이 전시됐을 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기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함께 걸어두고 보니 제 그림만 걸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고 또 비교해 가며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두 사람은 인물을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공통점이 있다.

“작품 속 여성은 딱 나예요. 일기를 쓰듯 그림을 그려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 연애감정에 한창 빠져 있던 내 모습 등 내 삶을 사는 중년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죠. 한때 최근 갈수록 아이를 그리고 있던 문씨는 자기 이야기를, 자기 색채를 뚜렷이 갖고 작업하는 전 작가를 먼저 떠올

(전현숙) “처음에는 제가 아이 같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아이를 소재로 하는 게 혹시나 어렸을 때 쌓여있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나, 어떤 기억들이 어릴 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건 아닌가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죠.”(성혜림)

지속적으로 인물을 그리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변화를 모색한다. 전 작가는 2006년부터 근작까지 삶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는 인물의 모습을 전시했다.

“인물을 그린 초창기에는 남녀가 다 등장했지요. 결혼 후 오히려 독립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면서 저에게만 집중하게됐다고 할까요. 제 인물상은 과장돼 있어요. 정상적 비율로 그리는 인물은 재미가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특징을 조금씩 과장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나갔죠. 예전엔 터치도 훨씬 거칠었어요. 배경이 거의 없이 ‘사람’에 집중하게 되면서 인물의 옷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등 훨씬 붓질이 많아지고 공력이 들어가지요.”(전현숙)

“초기작에서 저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던 지금 등장하는 아이들은 앞날을 두려워하면서도 세상으로 한발짝 더 나아가려 하

는, 성장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나에게서 나가는 선 등 외부와의 연결고리도 많이 등장하구요. 사탕이나 색구슬은 욕망의 상징으로, 휴대폰과 이어폰은 소통의 상징으로 알게 모르게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성혜림)

두 사람의 작품 한점 한점은 꼭 ‘짧은 소설’처럼 읽힌다. 인물의 표정과 배치, 등장하는 소품 등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다. 문씨는 작품 속 주인공이 꼭 엄마와 딸 같다고 했다. “어른이 됐지만 세상을 향해 뛰어드는 게 두려운 딸과 한 인간이자, 엄마, 나라는 존재에게 부여된 역할 속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놓치고 싶지 않은 엄마의 모습”이라고.

전 작가는 동료작가(서양화가 이인성)와 결혼한 성 작가의 작품 변화에 기대가 많다고 했다. “결혼, 출산 등 삶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면 분명 작품에 변화가 있고, 그것을 성 작가만의 시선으로 풀어내면 정말 흥미로운 작품이 나올 거”라는 말이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전 작가는 신세계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조선대에서 수학한 성 작가는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무등현대미술관 입주 작가로 활동했다.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5월극 애꾸눈 광대 ‘어머니의 노래’ 공연

25·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공원 ‘애꾸눈 광대’가 올해는 ‘어머니의 노래’ (사진)를 부제로 무료 공연된다.

6년째 무대에 오르고 있는 5월극 애꾸눈 광대 ‘어머니의 노래’가 오는 25일과 26일(오후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애꾸눈 광대’는 광주의 5월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주인공 이지현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 2013년 초연을 시작으로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애꾸눈 광대’는 올해 ‘어머니의 노래’를 부제로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낸 우리네 어머니의 인생사를 이야기한다.

방송 및 희곡작가 김원민이 새롭게 각

색하고, 이행원(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대표, 한국소극장협회광주지회장)이 3년째 연출을 맡았다.

출연진은 김갑돌·약장수 역에 이세상(지현), 어머니 역 김안순, 이지훈 역 이현기, 이장·신발장수 역 노희설, 영암택역 정경아, 형사 역 최용규, 팔용·각설이·민남 역 한종신, 인숙 역 최효주 등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 배우들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한편 작품은 오는 9월까지 매일 두 차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상설공연된다. 11월까지의 광주·전남지역 학교 등을 찾아가 10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선착순 100명 입장 무료, 전화(062-670-7942) 예약 가능하다. 5세 이상 관람.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내일 박영택 교수 초청 강의

광주시립미술관은 2018년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네 번째 강사로 미술평론가 박영택(사진) 경시대 교수를 초청했다.

19일 오후 3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에서 박교수는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을 주제로 강의한다.

‘앵포르멜’은 추상표현주의와 유사한 유럽의 추상미술로 재료 자체의 물질성을 강조하며 추상표현주의보다 더 급진적으로 그림을 해체하는 작품을 말한다. 박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대표 작가인 장 뒤 뷔페, 장 포트리에 등의 작가와 작품

을 소개한다.

박교수는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제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2010 아시아프 총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KBS1 ‘명작스캔들’, TV 미술관’ 등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다. 인터넷방송 ‘넷향기’에서 ‘박영택의 미술강좌’를 진행했다. 문의 062-613-71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예술총감독 장영준 감독 선임

광주국제미술협회는 공모를 통해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 18) 예술총감독으로 장영준(59)감독을 선임했다.

광주 출신인 장 감독은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실 미술담당 행정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장,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장, 안산문화재단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예총 책임 큐레이터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전시기

획으로는 ‘민중미술 15년전’, ‘한국전통 산수화전’, ‘현대미술 초대전’, ‘수목의 조형전’, ‘독일 플렉서스전’ 등이 있다.

올해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 18)는 오는 11월 15일 ~11월 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강서경·로렌스 아부 함단

아트바젤 발루아즈 예술상 수상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가 아트바젤이 매년 2명의 현대미술가에게 수여하는 발루아즈 예술상(Baloise Art Prize)을 수상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강서경 작가와 요르단 작가 로렌스 아부 함단이 올해 아트바젤의 발루아즈

예술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발루아즈상은 약 10명의 유럽 주요 미술관 큐레이터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스테이트먼트 섹터에 참가한 작가 중 2명에게 주는 상이다. 주최측은 작가에게 상금 3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3300만 원)을 수여하고, 수상작을 구매해 유럽 미술관 두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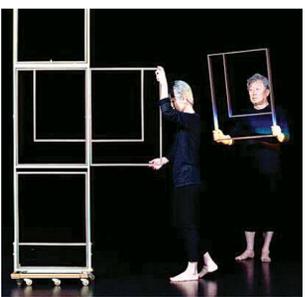
에 기증한다

한국 작가가 발루아즈상을 받은 것은 2007년 양혜규에 이어 두 번째다.

강서경 작가는 2016광주비엔날레에서 비디오 설치 작품 ‘검은자리 꼬꼬리’와 ‘검은 아래 색깔’을 전시했으며, 2018광주비엔날레에서도 김만석, 김성우, 백종욱 큐레이터가 꾸미는 한국전 섹션에 참여한다.

로렌스 아부 함단은 2016년 광주비엔날레에서 ‘고무 도포 감질’, ‘마지막 어휘’ 등의 작품을 4전시실에서 선보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강서경 작 ‘검은 아래 색깔’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문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연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